임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광주 - 동광령IC 구간 광역 동행료 환불
우천시 9홀 이후 홀별요금정산제 실시
예약 : www.hpdynasty.co.kr 080) 320-7700

## ■ 결승 티켓 주인공은?

*브라질, 아르헨티나만 빠진 '미니 월드컵' 2008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2008) 8강전이 이변이 속출한 가운데 마무리됐다.*

*지난 20일(이하 한국시간)부터 나흘 동안 8팀이 준결승 진출을 다툰 끝에 이번 대회 4강은 '전차군단' 독일과 '투르크 후예' 터키, '히딩크 마법' 러시아, '무적함대' 스페인으로 압축됐다.*

# 스페인, 히딩크와 또 운명의 만남

### 伊에 승부차기 4-2 승

### 27일 러와 결승행 다퉈

개막 전 우승후보로 꼽혔던 팀 가운데 독일, 스페인만 살아남았고 포르투갈, 네덜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등 강호들이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져 나갔다.

8강전 첫판은 독일이 '축구 천재'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버틴 포르투갈을 힘겹게 물리치며 끝났다.

대회 개막 전부터 가장 유력한 우승후보로 꼽혔지만 조별리그 B조에서 크로아티아에 일격을 당하는 등 부진에 빠졌던 독일은 힘과 높이를 앞세워 득점포를 연달아 뿜어낸 끝에 3-2로 승리해 간신히 8강전을 통과했다.

두번째 8강전부터 예상치 못한 결과가 잇따랐다. 3연승을 달리며 B조 1위로 8강에 올라 '다크호스'에서 '우승후보'로 신분이 급상승한 크로아티아의 무난한 승리가 점쳐졌지만, A조 최종전에서 체코에 3-2 역전승을 거두며 턱걸이로 준준결승에 진출한 터키의 끈끈한 저력을 이겨내지 못했다.

연장 후반 막판까지 무득점 헛심 공방이 이어지다 크로아티아가 경기 종료를 1분 남기고 선제골을 뽑아낼 때만 해도 객관적인 예상이 맞아 떨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은 터키는 인저리 타임이 2분 가량 흐른 경기 종료 7초 전 동점골을 뽑아내 분위기를 반전시켰고, 결국 승부차기에서 3-1로 크로아티아를 돌려세우며 대망의 준결승에 올랐다.

네덜란드와 러시아의 세번째 8강전에서 이번 대회 최대 이변이 터져 나왔다. 네덜란드 출신 거스 히딩크 전 한국 대표팀 감독이 이끄는 러시아가 이번 대회들어 가장 안정된 팀으로 평가받던 조국 네덜란드를 물리친 '사건'이 벌어졌다.

네덜란드는 '죽음의 조' C조에서 독일월드컵 우승팀 이탈리아와 준우승팀 프랑스를 잇따라 꺾으며 난공불락의 성으로 우뚝 섰지만 '4강 청부사' 히딩크의 마법에 속수무책이었다.

결과는 연장 혈투 끝에 러시아의 3-1 승리.

23일 벌어진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마지막 8강전에서는 스페인이 승부차기 끝에 4-2로 승리해 4강 턱걸이에 성공했다. 조 2위로 8강에 오른 팀이 모조리 4강행 티켓을 가져간 반면 D조 1위 스페인만 자존심을 지키며 준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이탈리아가 독일월드컵 우승 당시 전력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스페인이 승부차기 끝에 이탈리아를 넘어선 것은 어찌 보면 이변이었다. 스페인이 평가전을 제외한 메이저대회에서 무려 88년 동안 벗어나지 못하던 이탈리아전 무승의 늪을 빠져나온 것이다.

26일 킥오프되는 준결승 2경기는 독일과 터키, 러시아와 스페인의 대결로 압축됐다.

독일, 스페인이 우승후보로서 자존심을 지킬 지, 터키와 러시아가 돌풍을 멈추지 않을 지 전 세계 축구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

스페인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23일 오전(한국시간) 오스트리아 빈의 에른스트하펠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2008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2008) 이탈리아와의 대회 8강전 승부차기에서 4-2로 승리를 확정한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스페인 골키퍼 카시야스 '2002년 월드컵 승부차기 악몽' 털었다

### 한국과 8강서 3-5 패 기억

### 23일 伊전 선방으로 씻어

'무적 함대' 스페인의 주전 골키퍼 이케르 카시야스(27·레알 마드리드)가 2002년 한일월드컵 승부 차기 악몽에서 마침내 벗어났다.

또 세계 최고의 골키퍼로 평가 받고 있는 이탈리아 잔루이지 부폰(30·유벤투스)과 거미손 맞대결에서도 판정승을 거두며 스페인의 4강 진출에도 기여해 기쁨은 두 배였다.

23일 오전 오스트리아 빈 에른스트하텔 슈티다온에서 열린 스페인과 이탈리아 간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2008) 8강전.

스페인 골키퍼로 선발 출전한 선수는 역시 카시야스였다. 카시야스는 2002 한일월드컵 때도 스페인 골문을 지켰던 수문장.

하지만 당시 거스 히딩크 감독이 이끌던 한국과 8강 전에 나섰다가 승부차기 끝에 3-5로 패했던 잊고 싶은 기억이 아직도 머리속에 남아 있다.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카시야스가 이탈리아 키커 두 명의 슛을 막아낸 반면 부폰은 한 명의 슛만을 저지해 결국 4-2로 승리한 스페인에 4강행 티켓이 돌아갔다.

독일월드컵 이후 주장을 맡은 카시야스는 이날 거미손의 위력 뿐만 아니라 팀 내 안정을 책임지는 일까지 맡았다.

경기 내내 이탈리아 최전방 공격수 루카 토니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수비진을 지휘하며 팀의 안정된 플레이를 이끌었다.

승부가 더욱 치열해 진 후반전과 연장전에서는 결정적인 실점 위기도 여러 차례 넘겼다.

카시야스는 승부차기에서도 두 차례 상대 선수의 슈팅을 막아내며 스페인에 승리를 안겼다.

이탈리아 두 번째 키커 다니엘레 데로시가 왼쪽을 향해 찬 볼의 방향을 미리 읽고 몸을 날려 손으로 막아낸 데 이어 네 번째 키커 디나탈레가 꺾어 찬 슈팅마저 손으로 쳐냈다.

카시야스가 다시 한번 스페인의 수호신으로 우뚝 서는 동시에 8년 동안 잊지 못하던 아픈 기억을 깨끗이 씻어내는 순간이었다.

2008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2008)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8강전 승부차기에서 스페인의 골키퍼 이케르 카시야스가 이탈리아의 두 번째 키커 다니엘레 데로시의 슛을 막아내고 있다. /연합뉴스

# '허무 축구'…색깔을 찾아라

〈허정무 감독 축구〉

*축구대표팀이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축구 아시아지역 3차 예선에서 3승3무(승점 12)의 성적으로 최종예선 진출권을 확보하면서 본선진출을 향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하지만 허정무호는 지난 22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북한과의 경기에서 무기력한 경기 끝에 0-0으로 비기는 등 3차 예선 6 경기에서 답답한 공격력과 헐거운 수비로 일관해 팬들은 실망감을 느껴야만 했다.*

### 북한과 월드컵 亞예선 0-0 무승부 졸전

### 답답한 공격력 수술…확실한 전술 필요

◇허정무호의 고난 행군=허정무호는 지난 1월 30일 칠레전(0-1패)을 시작으로 동아시아연맹선수권대회(1승2무)와 월드컵 3차 예선(3승3무) 등 10경기를 치르며 15골(8실점)을 뽑아냈다. 외견상으로 나쁘지만은 않은 성적일 뿐 아니라 칠레전 패배 이후 9경기 연속 무패(4승5무)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호성적에도 팬들이 답답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먼저 지적을 받는 부분은 지금까지 치른 10경기 중에서 한국보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이 높았던 국가가 칠레(47위)와 일본(38위) 뿐이라는 것이다. FIFA 랭킹 100위 요르단과 두 차례 싸워 1승1무(3골2실)의 힘겨운 혈투를 벌이고, 북한(118위)과는 3무(1골1실)의 성적을 거뒀다. 그나마 투르크메니스탄(150위)과 두 차례 맞붙어 7골을 뽑은 게 성과다.

◇믿을 만한 공격수의 부재=허정무 감독은 월드컵 3차 예선 1~5차전까지 박주영(서울)을 선발 원톱 공격수로 풀 타임 기용했고, 박주영은 두 골을 뽑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박주영의 골은 모두 페널티킥골.

전문 프리키커이자 원톱 공격수로서 3차 예선을 치르며 필드에서 한 골도 기록하지 못한 것은 허 감독에게 큰 부담을 줄 수 밖에 없다. 원톱 요원인 고기구(전남) 역시 기대했던 포스트플레이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고, 안정환(부산) 역시 스피드가 떨어지면서 선발로 출전시키기에 버겁다는 인상만 남기고 말았다.

여기에 해외파 설기현(풀럼)이 프리미어리그를 마친 이후 컨디션 조절에 실패했고 동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두 경기 연속골을 터트린 염기훈(울산)은 지난 4월 왼쪽 발등뼈(제5중족골) 피로골절로 수술을 받고 3개월 동안 그라운드에 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허정무 감독으로선 한정된 자원에서 공격진을 꾸려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고 말았다.

◇이제는 색깔이 필요할 때= 월드컵 3차 예선을 통해 '팀 빌딩'을 하고 있는 상황 임을 감안하더라도 대표팀의 경기력과 전술은 매경기 심한 편차를 드러내고 있는 게 사실이다. 북한과 3차 예선 최종전에서 처음으로 고기구를 원톱으로 포스트플레이 전술을 펼쳤지만 허 감독의 실험은 고질적인 크로스의 부정확성으로 실패작이 됐다.

또 미드필더부터 공격수까지 이어지는 세밀한 패스도 매끄럽지 않았고, 상대 뒷공간을 노리는 롱킥 역시 번번이 잘렸다. 최종예선을 앞둔 허정무호로선 승리를 위한 확실한 전술을 마련해야만 할 때다.

/연합뉴스